

# PET병, 쌀 포장재로 인기 높다!

## 농협, 쌀 신선도 높이고 소비자 호감 ... 냉장고에 신선보관 가능

PET병에 원통형 종이상자, 한지까지 경기미를 전국에 알리는 얼굴 역할을 하는 포장재도 개성시대로 접어들었다.

농협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03년 경기도 이천지역 모과·이천·대월·부발농협은 소포장 선물용으로 2kg들이 PET병 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냉장고 물병 칸에도 보관이 가능한 PET병 쌀 포장재는 장기간 신선 보관이 가능해 이미 2003년 햅쌀 19톤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처음 선보인 여주지역 여주·가남·대신농협의 원통형 종이상자 포장재는 2003년에도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마찬가지 2kg 소규모 포장재인 원통형 종이상자는 쌀을 모두 먹은 다음 양념통 등 여러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해 주부들의 호응을 얻어면서 이미 96톤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화성시 팔탄농협은 고급스런 한지를 이용한 4-10kg들이 쌀 상품을 개발해 선물용 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김포시 신김포농협은 휴가철 야외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500g 소포장 10개를 알루미늄으로 포장한 5kg 쌀 포장 상품을 주력제품으로 내놓고 있다.

농협경기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쌀을 구입할 때 첫번째 조건은 미질과 가격이지만 포장 역시 무시 못할 구매요건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기미의 우수성에 포장재의 신선함이 가미된다면 경기미의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1/07>